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적응요인에 관한 연구

송 지 현*
(한남대학교)

이 태 영
(한남대학교)

본 논문은 대전·충청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부부를 대상으로 그들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부부간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편들의 경우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을수록, 자문화 전달태도를 취할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결혼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아내들은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태도와 자문화 전달태도를 취할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결혼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요약하면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자문화 전달태도, 즉 문화적응이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성별에 따른 결혼생활의 차이를 이해하고, 부부사이의 친밀도를 더욱 높여 긍정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의의가 있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적응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가족복지실천방안에 대해서도 제언하였다.

주요용어: 다문화가족, 결혼적응, 의사소통, 문화적응

* 교신저자: 송지현, 한남대학교(2000_april@hanmail.net)

■ 투고일: 2010. 9. 11 ■ 수정일: 2010. 12. 9 ■ 게재확정일: 2010. 12. 13

I. 서론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사회도 국제결혼이 비교적 자유로워지고 다문화가족¹⁾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뿌리깊은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남녀성비의 불균형(박재규, 2006; 양순미·정현숙, 2006; 구차순, 2007),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과거에 비해 향상되어 외국인 여성들이 경제적 상황을 타개하고자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선택하는 행위(장운정, 2007; 김근식·장운정, 2009), 그리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와 같은 캠페인 등은 국제결혼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박재규, 2006; 홍달아기·채옥희, 2007).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국제결혼 건수는 총 33,300건으로 전체 결혼 건수의 10.8%를 차지하였다. 그중에서도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는 25,142건이며, 출신국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남성의 결혼 5,600건 중에서 35.7%인 2,000건이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다(통계청, 2010). 한국사회에서 주변화된 남성들과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의 여성들과의 결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국제결혼은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다양한 유형으로도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가족의 증가라는 현상 속에서, 수많은 외국인 아내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적응문제,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 사회적응에 따르는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적 편견 등의 문제로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김오남, 2006a; 양순미·정현숙, 2006). 또한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와 시부모의 통제로 인하여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윤형숙, 2004; 한건수, 2006; 홍달아기·채옥희, 2007). 한국의 가족체제가 친족중심에서 부부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특수성이 외국인 며느리와 가족간의 갈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제는 국제결혼으로 맺어진 가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갈등이 사회적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이란 ①「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②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점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국제결혼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사회복지학, 여성학, 심리학, 문화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사회복지학계에서는 다문화가족 부부의 갈등과 결혼만족도를 중심으로 국제결혼의 과정, 적응, 갈등 등을 연구하는 한편,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개입 또는 사회복지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여 심층면접, 사례연구, 그리고 실태조사 자료 등을 통하여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족 내에서 경험하는 부부만족, 부부갈등, 가족폭력과 학대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에 다문화가족의 남편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입장, 어려움,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접근은 다소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혼생활의 주체가 되는 두 부부간의 상호관계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Bradbury et al., 2000; 김오남, 2006a; 김연수, 2007; 김민경, 2009). 특히 결혼적응은 부부의 특성 및 그 사회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지만,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부부간의 상호이해와 협동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부부를 대상으로 그들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고, 부부간에는 어떠한 다른 양상을 보이는가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성별에 따른 결혼생활의 차이를 이해하고, 부부사이의 친밀도를 더욱 높여 부부의 긍정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II. 이론적 배경

1. 결혼적응의 개념

‘결혼적응(marital adjustment)’이라는 개념은 주로 가족관계를 연구하는 분야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결혼성공(marital success), 결혼만족(marital satisfaction), 결혼행복(marital happiness) 등 다양한 용어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Burgess와 Locke(1960: 443-444)는 결혼적응을 결혼의 성공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척도로 보았으며, “남편과 아내가

중요한 문제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관심·목적·가치에서 조정이 잘 이루어지고, 애정표현과 감정의 공유가 조화를 이루며, 결혼에 대해 불만을 갖지 않는 하나의 집합체”라고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결혼적응은 동적인 과정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Spanier(1976: 16-17)는 결혼적응을 질적인 영역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며, (1) 부부간의 차이, (2) 대인관계의 긴장과 개인적인 불안, (3) 부부간의 만족, (4) 부부간의 응집, (5) 부부관계가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문제의 일치정도로 결정되는 결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기반으로 하여 부부간의 일치도, 만족도, 응집도, 애정표현도라는 4개의 하위 영역으로 부부적응척도(Dyadic Adjustment Scale)를 개발하고, 4가지 결혼적응요인에서 높은 점수가 나올수록 결혼적응도가 높다고 보았다.

결혼적응에 대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이숙현(1988: 163)은 결혼적응을 “배우자와의 차이를 줄이고 결혼상황에 익숙해져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양순미·정현숙(2006: 231)도 “개인 자신의 욕구와 결혼생활환경, 결혼생활문화 및 규범과의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결혼생활의 기대에 맞추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다문화가족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결혼적응에 대하여 효과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 이론적 논의는 선행연구들에서 다른 요인들을 중심으로 분류한 결과 다음 3가지로 요약 설명될 수 있다. 즉 성역할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중심으로 부부관계를 이해하는 성역할 요인, 그리고 과정과 맥락이 되는 의사소통이나 관계의 질적 측면을 나타내는 상호작용 요인, 마지막으로 언어적 능숙함, 문화적 차이 등을 포함한 문화에 대한 적응정도를 나타내는 문화적 요인이다. 이러한 이론을 중심으로 결혼적응과의 관련성을 논의할 것이다.

가. 성역할 요인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상대방과 자신에게 적용하는 성역할관은 각 성에게 어떤 것이 적합한 행동인지를 규정하는 경계의 체계이다(조혜선, 2003: 95-96).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성역할 태도(sex role attitudes)에 대한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개별 성원들은 사회

적으로 구성된 전형화(stereotyping)에 영향을 받는다. 성역할 태도에 따라서 가족 내에서 남편 혹은 아내의 영향력은 다르게 평가되고 상대방에 대해 다른 기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성역할 태도는 결혼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Lewis와 Spanier(1979: 284)는 부부간의 역할기대와 수행이 일치될 때 결혼의 질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동일 문화권에서 자라고 학습한 국내결혼 부부에서도 성역할 태도가 결혼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때, 서로 상이한 문화권에서 다른 성역할 태도를 습득한 다문화 가족 부부들인 경우에는 서로의 결혼적응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국제결혼한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생활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일본남성과 결혼한 서구여성의 성역할 일치 여부는 결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Cottrell, 1990), 국제결혼이 국내결혼보다 역할 불일치가 두드러졌다(Imamura, 1990). Baltas와 Step-toe(2000)의 연구에서도 터키-영국인 부부간에는 종교와 결혼에 대한 행동패턴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특히 터키사회의 전통적인 성역할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미국에 이주한 아시아 및 카리브 여성들도 성역할에 따른 부부갈등을 호소하였다(Patterson, 2004). 국제결혼을 한 여성의 성역할 기대로 인하여 결혼생활에 지속적인 긴장이 발생하였으며(Seto & Cavallaro, 2007), Remennick(2009)의 연구에서도 이스라엘-러시아 부부간에 성역할로 인한 부부갈등이 발생하였다.

다문화가족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부부관계에 대한 국내연구들을 살펴보면, 외국인 아내들은 한국인 남편의 가장장적인 태도와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어렵고 그에 대한 불만이 많아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윤형숙, 2004; 계선자 외, 2009). 그리고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근대적인 성역할관이 결혼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은정, 2007; 강기정 · 변미희, 2009; 장은정 · 박정윤, 2009).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편의 성역할관이 결혼의 적응을 높인다는 결과는 국내결혼에 관한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최규련, 1984; 이미숙, 1996; 고선주, 1997). 다만 기존연구에서는 부부 중 한쪽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부부 상호간의 역동적인 면이 고려되지 않았다.

나. 상호작용 요인

결혼의 질과 관련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양상에도 주목해야 한다. 부부는 의사소통을 통하여 배우자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으며, 동등하고 민주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공동관심사를 논의해야 가정의 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다. 부부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해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승자도 패자도 없는 창조적이고 내적인 타협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여기에서도 의사소통의 역할은 중요하다. Lewis와 Spanier(197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사소통이 빈번하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정확히 해석할수록 결혼의 질이 높았다. 조혜선(2003: 109)도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수록 결혼의 질이 높아진다고 분석하였으며, 의사소통이라는 과정적이고 맥락적인 요소가 결혼만족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의사소통 능력에서는 남녀 간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장휘숙·이영주(200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성들은 의사소통능력 중 타인지향성이 높을수록, 반대로 여성들은 표현력과 자기노출 능력이 높을수록 보다 큰 결혼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혜숙·김영희(2008)의 연구에서도 남편은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부인은 요구·회피적 의사소통을 적게 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단순히 언어소통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적 성격을 의미한다. 즉 의사소통의 효율성은 의미전달 이상의 관계형성과 문화적 이해까지도 포함하는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것은 결혼생활적응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실제로 권복순·차보현(2006)은 의사소통능력이 문화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문화적 정체성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장온정(2007)의 연구에서도 국제결혼을 한 한국남성들에게 의사소통이 결혼적응 뿐만 아니라 부부갈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근식·장윤정(2009)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내의 의사소통능력이라고 주장하였다. 김현숙(2010)의 연구에서도 외국인 아내들의 의사소통수준이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소통은 결혼생활 적응은 물론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가족생활적응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양순미·정현숙(2006: 245)은 긍정적인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측면의 감정이나 의견을 긍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상호 교류하는 기술들이 결혼초기에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부부가 친구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수록 결혼의 질은 높아진다(Lewis & Spanier, 1979). 가족과 친구들로부터의 지지가 결혼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갈등을 감소시

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Chinitz & Brown, 2001). 그리고 친밀한 가족관계가 부부에게 긴장을 완화해주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Cottrell, 1990). Brock와 Lawrence(2008)는 남편의 지지가 부인의 결혼만족에 관한 만성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지지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신들에게 가장 힘이 되어 주는 대상으로 본국 친구들을 언급하고 있다(신란희, 2005). 그 외에도 교회, 성당 등의 종교단체와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지역사회기관과 인권단체들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는 가족의 응집력 및 친구와 같은 동지 의식을 가진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결혼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도 의사소통능력 향상, 자녀교육 및 양육지원, 그리고 한국요리를 배우는데도 도움을 받아 결혼생활적응에 도움이 되었다(계선자 외, 2009). 국제결혼을 한 한국 남성들의 경우에도 사회적 지지가 결혼적응에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추현화 외, 2008).

그러나 국제결혼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한국인 남편보다 여성결혼 이민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한국인 남편과 그 외의 가족구성원들을 위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관심은 다소 소홀하였다. 결혼이민여성 부부집단 프로그램에 참석한 대다수의 한국인 남편들도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생활에 대하여 애로를 토로하였는데(이은주, 2007: 43), 이는 한국인 남편들에게도 별도의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 문화적 요인

문화적응이란 문화적 근원이 다른 사람들 간의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로 발생한 변화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Redfield et al., 1936: 149), Berry(1980)는 문화적응상태를 두 가지 차원의 네 가지 결과로 범주화하였다. 즉 모국의 문화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동시에 받아들이면 ‘통합’, 모국의 문화는 유지하지 않고 새로운 문화만을 받아들이면 ‘동화’,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리’,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문화도 접촉하지 못하면 ‘주변화’가 된다.

한국에서는 조상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한국의 문화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일방적으로 동화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외국인 아내 및 며느리와의 문화적 차이는 단순히 언어와 음식이 다르다는 점에 집중되어 있을 뿐,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단지 배우자의 개인적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한진수, 2006).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남편들은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고 기대하는 ‘고백락 문화’를 외국인 아내에게 기대하는 경우도 많다(유명기, 1997). 이렇듯 남편과 시댁식구들의 일방적인 태도로 인하여 외국인 아내들은 결혼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결혼을 통하여 자신이 속해 있던 문화권에서 타문화권으로 유입된 사람들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해나가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문화적 요인을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아내의 모국문화에 대한 남편의 이해는 결혼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연수, 2007). 변미희·강기정(2010)의 연구에서도 남편의 다문화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부부관계에서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자세가 결혼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인 남편의 다문화 수용태도와 자문화 전달태도도 결혼적응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장온정, 2007; 장온정·박정운, 2009; 강기정·변미희, 2009). 이는 한국인 남편이 아내의 모국문화에 대해 알고자 애쓰고 서로의 차이점을 인지하고 수용하며 상호간에 조정하려는 노력이 결혼생활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문화적응의 부정적 측면이라 할 수 있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문화적응 과정에서 발생한 긴장(스트레스원)을 말하며, 스트레스원의 결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의미하기도 한다(Hovey, 1999: 187).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원문화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이주국가와의 관계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osic, 2004). 이와 관련하여 Cobb(1976: 300)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지각된 차별감, 지각된 미움, 죄책감 요인들이 개인의 외적인 환경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애정을 주고, 존경해주고, 가치 있는 존재라 여겨주며,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고 느끼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터키-영국인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문화적 차이의 경험은 부부갈등을 일으키고, 이러한 갈등이 부부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Baltas & Steptoe, 2000). Seto와 Cavallaro(2007)의 연구에서도 국제결혼을 한 부부에게 문화의 차이는 결혼긴장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김오남(2006a)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부부갈등이 높아졌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한국생활 및 결혼적응과 부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연수(2007)도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결혼행복

감이 감소되었음을 규명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는 다른 문화권으로부터 한국사회로 유입된 집단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문화적응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안내 없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터득해 나가는 힘든 문화학습과 적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한국인 남편들 또한 아내들이 한국생활에 빠르게 동화되지 않을 때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데, 다문화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고 부부관 여자가 남편을 따라 주는 것이라는 생각에 익숙한 한국인 남편들은 시간이 흘러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에 대해 답답해하며 적당히 포기하면서 산다(윤형숙, 2004: 334). 이와 같이 문화적응은 한국사회로 유입된 소수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인 남편과 그 가족들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와는 상이한 다른 문화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적응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논의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다문화가족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서베이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표집은 대상자로 접근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 비확률표집에 해당되는 편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동시에 여성결혼이민자나 주위 친구, 이웃 등의 소개로 한 눈덩이 표집방법도 함께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대전과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결혼이민자센터와 복지관을 통하여 표집하였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응답정보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기하기 위하여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등 4개 국어로 각각 번역하여 진행하였다. 주로 면접식 질문을 실시하였으며, 한국어가 익숙하여 설문지 작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진행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10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였으며, 설문지는 총 480부(남편 240부, 아내 240부)를 배포하여 290부(남편 130부, 아내 160부)를 회수하였다.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7부를 제외하고 유효한 설문지 283부(남편 130부, 아내 153부)²⁾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변수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변수를 조작하였다.

가. 성역할 요인

성역할 요인은 성역할 태도로 구성하였다. 성역할 태도는 이미숙(1996)이 작성한 척도를 중심으로 모두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척도의 응답방식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를 의미한다.

나. 상호작용 요인

상호작용 요인은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로 구성하였다. 먼저 의사소통 척도는 Bienvenu(1970)의 Marital Communication Inventory를 수정·보완하여 모두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의사소통은 유기체들이 기호를 통하여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해서 서로 공통된 의미를 수립하고, 나아가서는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 및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유영주 외, 1999: 154).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척도의 응답방식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으나, 제한된 접근성으로 인하여 다문화가족 부부, 한국인 남편, 외국인 아내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지지를 일상생활의 경험에 대해 기능적 속성을 중심으로 사회망 구성원들을 통해 받거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지지에 대한 지각의 정도로 조작적인 정의를 하였다. 지지제공자를 (시)부모, 친구, 행정기관과 민간단체 영역으로 나누고 각 출처별로 다차원의 지지정도를 물을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각각 총 3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척도에 따라 측정한다. 척도의 응답방식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다. 문화적 요인

문화적 요인은 문화적응태도와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구성하였다. 먼저 문화적응태도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부부사이에서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문화적응태도의 척도는 장은정(2007)의 척도를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2개의 하위영역인 다문화 수용태도와 자문화 전달태도로 구성하였다. 다문화 수용태도는 상대국가의 문화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노력 및 태도를 의미하며, 자문화 전달태도는 모국의 문화를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적응시키기 위한 노력 및 태도를 의미한다. 문화적응태도는 모두 12개 문항으로, 1-6번 문항은 다문화 수용태도에 관한 문항이며, 7-12번 문항은 자문화 전달태도에 관한 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척도의 응답방식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하위영역별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태도와 자문화 전달태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Sandhu와 Asrabadi(1994)가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을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차별감 8문항, 지각된 적대감 5문항, 문화충격 2문항 등 모두 15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척도의 응답방식은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결혼적응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적응은 Spanier(1976)의 부부적응척도(Dyadic Adjustment Scale)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부부적응척도는 결혼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4가지 하위영역인, 부부만족도, 부부결합도, 부부일치도, 애정표현도로 구분되어 있다. 총 문항수는 30문항으로, 부부만족도에 관한 7개 문항, 애정표현도에 관한 4개 문항, 부부일치도에 관한 15개 문항, 그리고 애정표현도에 관한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척도의 응답방식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적응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Windows ver. 12.0)를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결혼적응 및 관련변인의 부부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연령대를 살펴보면, 남편은 30대와 40대가 전체의 89.2%를 차지한 반면, 아내는 20대가 71.9%로 가장 많았다. 남편의 연령대와 아내의 연령대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부의 학력수준은 남편

의 경우 고졸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중졸 26.9%, 대졸 이상 22.3%, 초등졸 이하가 6.9%로 나타났다. 아내의 학력수준은 고졸 35.9%, 중졸 31.4%, 초등졸 이하 19.6%, 대졸 이상 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학력을 비교해 볼 때, 고졸 이상의 학력비율은 남편이 다소 높은 것은 알 수 있다. 직업의 경우 남편은 관리직/전문가/사업이 2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단순노무직이 23.8%, 기타(농업, 기술직 등)가 21.5%, 판매/서비스직이 18.5%로 나타났다. 아내는 전업주부가 75.8%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단순노무직이 9.8%, 기타(농업, 기술직 등)가 8.5%를 차지하였다. 아내의 국적은 부부 모두 베트남(남편 60.0%, 아내 59.5%)이 가장 많았고, 중국(남편 13.8%, 아내 15.7%)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	구분	남편	아내	변인	구분	남편	아내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연령대	10대	0(0)	1(0.7)	직업	단순노무직	31(23.8)	15(9.8)
	20대	5(3.8)	110(71.9)		판매/서비스직	24(18.5)	3(2.0)
	30대	55(42.3)	32(20.9)		사무직/공무원	8(6.2)	0(0)
	40대	61(46.9)	6(3.9)		관리직/전문가/사업 무직(전업주부)	32(24.6)	5(3.3)
	50대	6(4.6)	2(1.3)		기타	28(21.5)	13(8.5)
	60대	2(1.5)	0(0)		무응답	2(1.5)	1(0.7)
	무응답	1(0.8)	2(1.3)				
학력	초등졸 이하	9(6.9)	30(19.6)	아내 국적	중국	18(13.8)	24(15.7)
	중졸	35(26.9)	48(31.4)		필리핀	9(6.9)	15(9.8)
	고졸	57(43.8)	55(35.9)		베트남	78(60.0)	91(59.5)
	대졸 이상	29(22.3)	19(12.4)		캄보디아	9(6.9)	10(6.5)
	무응답	0(0)	1(0.7)		일본	2(1.5)	3(2.0)
					기타	13(10.0)	10(6.5)
합계	130(100)	153(100)	무응답	1(0.8)	0(0)		
			합계	130(100)	153(100)		

나. 조사대상자의 가족 특성

조사대상자의 가족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부부의 결혼기간은 2년 이상 ~ 5

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수는 1명이 가장 많았다. 월평균수입은 남편의 경우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과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이 각각 29.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100만원 미만이 14.6%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가족 특성

변인	구분	남편	아내	변인	구분	남편	아내
		빈도(%)	빈도(%)			빈도(%)	빈도(%)
결혼 기간	6개월 미만	14(10.8)	14(9.2)	월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	19(14.6)	27(17.6)
	6개월 이상~1년 미만	22(16.9)	28(18.3)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	38(29.2)	38(24.8)
	1년 이상~2년 미만	30(23.1)	36(23.5)		150만원이상 ~ 200만원미만	38(29.2)	38(24.8)
	2년 이상~5년 미만	47(36.2)	54(35.3)		200만원이상 ~ 250만원미만	17(13.1)	21(13.7)
	5년 이상	16(12.3)	20(13.1)		250만원 이상	16(12.3)	14(9.2)
	무응답	1(0.8)	1(0.7)		무응답	2(1.5)	15(9.8)
자녀수	없음	42(32.3)	44(28.8)	가족 형태	핵가족	62(47.7)	86(56.2)
	1명	55(42.3)	76(49.7)	거주 지역	확대가족	68(52.3)	67(43.8)
	2명	28(21.5)	29(19.0)		도시 지역	58(44.6)	83(54.2)
	3명 이상	3(2.3)	2(1.3)		농촌 지역	71(54.6)	69(45.1)
	무응답	2(1.5)	2(1.3)		무응답	1(0.8)	1(0.7)
	합계	130(100)	153(100)	합계	130(100)	153(100)	

아내는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과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이 각각 24.8%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100만원 미만이 17.6%로 나타났다. 부부 모두 월평균수입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가 60% 이상 나타났는데, 이는 앞에서 제시한 부부의 학력이 고졸 이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단순노무직과 농업직이 다수인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가족형태는 부부와 자녀로만 구성된 핵가족이 남편과 아내가 각각 47.7%와 56.2%를 차지하였다. 거주지역은 남편의 54.6%와 아내의 45.1%가 농촌지역에 거주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결혼적응 및 관련변인의 분석

가. 결혼적응 분석

조사대상자의 결혼적응 및 하위요인의 부부간의 차이는 <표 3>과 같다. 남편과 아내의 결혼적응 및 하위요인의 부부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남편의 결혼적응은 평균 3.68, 아내는 평균 3.61로 5점 만점의 중간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부만족도, 애정표현도, 부부일치도, 부부결합도의 하위영역별로 나누어 살펴 보아도 같은 경향을 보인다. 먼저 부부만족도는 남편이 평균 4.05, 아내가 평균 3.96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애정표현도는 남편이 평균 3.58, 아내가 평균 3.71로 나타났다. 부부일치도는 남편이 평균 3.49, 아내가 평균 3.36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부결합도는 남편이 평균 3.81, 아내가 평균 3.81로 나타났다.

표 3. 부부의 결혼적응 및 하위요인의 집단 간 비교

변인		남편			아내			t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결혼적응		130	3.68	.53	153	3.61	.56	1.158
하위 요인	부부만족도	130	4.05	.62	153	3.96	.68	1.121
	애정표현도	130	3.58	.80	153	3.71	.89	-1.330
	부부일치도	127	3.49	.54	153	3.36	.66	1.839
	부부결합도	128	3.81	.93	150	3.81	.97	0.49

나. 성역할 요인 분석

성역할 태도의 부부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성역할 태도의 부부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남편의 성역할 태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56, 아내는 평균 2.57로 나타났으며, 중간점인 3점 아래로 모두 대체로 근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있어서 남편보다 아내의

성역할 태도가 더 근대적인 경향이 있다는 기존연구(최규련, 1984; 이미숙, 1996)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외국인 아내들에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권위적인 남편의 태도라고 주장한 기존연구와도 일치하지 않았다(윤형숙, 2004; 계선자 외, 2009).

표 4. 부부의 성역할 요인의 집단 간 비교

변인	남편			아내			t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성역할 태도	130	2.56	.79	153	2.57	.68	-.150

다. 상호작용 요인 분석

상호작용 요인의 부부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가 지각하는 의사소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의사소통은 남편의 경우 평균 3.55, 아내의 경우 평균 3.76으로 나타났으며, 남편보다 부인의 의사소통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아내들이 부부간 의사소통을 하는데 기본적인 한국어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불편함과 답답함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부부간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부부의 상호작용 요인의 집단 간 비교

변인	남편			아내			t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의사소통	130	3.55	.65	153	3.76	.74	-2.457*	
사회적 지지	130	3.11	.64	153	3.04	.67	.899	
하위 요인	(시)부모지지	123	3.88	.891	144	3.47	1.19	3.246*
	친구지지	130	3.32	.92	153	3.13	1.12	1.564
	행정기관지지	129	2.41	.97	152	2.49	1.01	-.700
	민간단체지지	130	2.85	1.04	152	3.07	1.09	-1.721

* p<.05

한편, 사회적 지지는 남편이 평균 3.11, 아내가 평균 3.04로 평균 5점 만점의 중간 점수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부부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시)부모지지의 부부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남편의 (시)부모지지는 평균 3.88, 아내가 평균 3.47로 사회적 지지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편의 점수가 부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이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가족의 지지나 도움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고,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면서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아내의 경우 시부모지지가 높게 나타난 것은 시부모가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갈등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가족 안에서 며느리에 대한 주된 지지제공자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함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밖의 하위영역인 친구지지, 행정기관지지, 민간단체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단지 평균점수에 있어 차이가 있었는데, 친구지지는 남편이 평균 3.32, 아내가 평균 3.13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 모국인 친구의 지지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행정기관의 지지는 남편이 평균 2.41, 아내가 평균 2.49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의 낮은 지지는 행정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서비스가 일회성에 그치거나, 참여대상도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부부가 인지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지지가 매우 낮다는 점은 앞으로 이들에게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민간단체의 지지는 남편이 평균 2.85, 아내가 평균 3.07로 나타났다. 민간단체의 지지가 행정기관의 지지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문화가족 부부에 대한 민간단체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민간단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과 가족생활, 지역사회에서 적응을 촉진시킨다고 볼 때 이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결혼 초기에서부터 필요하며, 지역사회 내 행정기관과 민간단체의 원조 체계 확립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라. 문화적 요인 분석

문화적 요인의 부부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문화적응태도 중에 다문화 수용태도는 부부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남편의 다문화 수용

태도는 평균 3.07, 부인의 다문화 수용태도는 평균 3.67로 나타났다. 아내가 남편보다 다문화 수용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한국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대상자 대다수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48% 이상이 한국 거주기간 2년 이상으로 한국사회에 일정부분 익숙하다고 인지한 결과로 보인다. 자문화 전달태도는 부부간 평균이 거의 같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남편의 자문화 전달태도는 평균 3.36, 아내의 자문화 전달태도는 평균 3.35로 나타났다. 남편들이 다문화 수용태도보다 자문화 전달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아내에게 한국에 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결혼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받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 부부의 문화적 요인의 집단 간 비교

변인		남편			아내			t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문화적응 태도	다문화 수용태도	130	3.07	.81	153	3.67	.75	-6.525*
	자문화 전달태도	130	3.36	.84	153	3.35	.97	.138
문화적응 스트레스		130	2.24	.58	153	2.56	.69	-4.250*

* p<.05

부부간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평균 2.24, 아내가 평균 2.56으로 나타났으며, 아내가 남편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내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언어, 음식, 생활방식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오해와 이해를 받지 못하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남편들 또한 외국문화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질감과 주변의 편견으로 인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 남편의 경우

남편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먼저, 모델 1에서는 일반적 특성 중 학력과 월평균수입이 결혼적응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15.9%이다. 즉 학력이 높고 월평균수입이 많을수록 결혼적응도 높게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후 성역할 요인(성역할 태도)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는데, 학력과 성역할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 설명력은 20%이다. 즉 학력이 높고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질수록 결혼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성역할 태도는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편이 근대적인 성역할관을 가질수록 결혼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기존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장운정, 2007; 장운정 · 박정윤, 2009).

표 7. 남편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β	B	β	B	β	B	β
(상수)	3.039		3.405		2.022		2.395	
연령대	.099	.132	.089	.119	-.003	-.004	.005	.007
학력	.146*	.237	.134*	.218	.040	.066	.024	.039
결혼기간	-.031	-.068	-.007	-.015	.001	.003	-.004	-.010
자녀수	-.135	-.202	-.108	-.161	-.123*	-.184	-.114*	-.169
월평균수입	.085*	.195	.074	.170	.035	.080	.019	.043
성역할 태도			-.156*	-.233	-.092*	-.137	-.032	-.048
의사소통					.533*	.639	.413*	.495
사회적 지지					.007	.008	-.057	-.068
다문화 수용태도							-.041	-.062
자문화 전달태도							.199*	.307
문화적응 스트레스							-.170*	-.185
F	5.696*		6.165*		21.199*		19.852*	
R ²	.193		.239		.594		.659	
Adjusted R ²	.159		.200		.566		.626	
R ² change			.46		.355		.65	

* p<.05

모델 3에서 상호작용 요인(의사소통, 사회적 지지)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자녀수와 성역할 태도, 의사소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 설명력은 56.6%이다. 먼저 자녀가 적을수록 결혼적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로 인한 노동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남편의 의사소통 또한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결과와 일치한다(양순미·정현숙, 2006; 장운정, 2007). 즉 부부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사실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를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다문화가족 부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다. 다른 문화권간의 적응에 있어 의사소통능력이 부부생활의 갈등 및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문화간, 국가간 결혼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 부부간의 의사소통능력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사회적 지지가 남편의 결혼적응에 의미있는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편들의 결혼적응이 높았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다(추현화 외, 2008). 이는 한국인 남편들이 정서상 결혼생활을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하는 한편, 국제결혼에 대한 사회의 편견 등으로 인하여 주위의 도움을 기피하는 현상에 기인한다.

모델 4에서는 문화적 요인(다문화 수용태도, 자문화 전달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자녀수, 의사소통, 자문화 전달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 설명력은 62.6%이다 특히 문화적응태도 중에서 남편이 자문화 전달태도를 취할수록 결혼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인 남편들이 아내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변화하기 보다는, 외국인 아내에게 한국문화를 전달해주고 아내가 한국문화에 맞추어 변화하는 것이 결혼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인지하기 때문이다. 문화적응과 관련된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인 남편과 시댁식구들은 외국인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한국습관과 언어, 생활방식 등을 요구하는 동화주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한건수, 2006). 이와 같이 한국문화 중심의 일방적인 동화를 추구하는 한국인 남편과 가족들의 요구는 외국인 아내들의 욕구와 상충되는 부분으로 결혼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외국인 아내들은 한국문화를 수용하는 만큼 본인들의 문화에 대해서도 이해와 수용을 원하기 때문이다. 또한 남편이 지역사회 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적응에 부의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

는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남편의 결혼적응이 낮았다. 남편은 외국문화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질감과 주변의 편견 등으로 인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아내의 경우

아내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모델 1에서는 일반적 특성을 투입하여 분석하였지만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었으며, 모델 2단계에서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후 성역할 요인(성역할 태도)을 포함하여 분석하였지만 마찬가지로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었다.

모델 3에서 상호작용 요인(의사소통, 사회적 지지)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 설명력은 29.3%이다. 아내 또한 남편과 마찬가지로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을수록 결혼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의사소통능력은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인들과 인간관계를 증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부부사이에 불충분한 의사소통, 불분명한 메시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의사소통은 오해와 부부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의사소통은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통로로서, 다문화가족 부부간에 제한된 언어로 주고받을지라도 부부가 함께 대화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결혼적응이 높아질 것이다. 사회적 지지도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적응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음이 나타났는데, 사회적 지지가 부부갈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김오남, 2006a; 2006b).

표 8. 아내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β	B	β	B	β	B	β
(상수)	3.594		3.262		1.623		2.166	
연령대	.053	.054	.065	.067	.033	.034	.053	.055
학력	.071	.116	.090	.147	.045	.073	-.018	-.030
결혼기간	-.087	-.177	-.099	-.201	-.100	-.204	-.119*	-.243
자녀수	-.069	-.088	-.078	-.100	-1.020E-05	.000	.011	.014
월평균수입	.059	.128	.063	.136	.055	.119	.021	.044
성역할 태도			.121	.147	.107	.131	.065	.079
의사소통					.323*	.401	.184*	.229
사회적 지지					.167*	.189	.102	.115
다문화 수용태도							.211*	.286
자문화 전달태도							.093*	.159
문화적응 스트레스							-.223*	-.264
F	2.895*		2.913*		7.890*		11.889*	
R ²	.102		.121		.336		.517	
Adjusted R ²	.067		.079		.293		.474	
R ² change			.19		.215		.181	

* p<.05

모델 4에서는 문화적 요인(다문화 수용태도, 자문화 전달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결혼기간, 의사소통, 다문화 수용태도, 자문화 전달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 설명력은 47.4%이다. 먼저 아내의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결혼적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생활이 길어짐에 따라 여성들이 결혼생활에서 자녀양육, 가사노동, 사회적인 소외 등과 같은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과도 관련된다. 아내의 경우 다문화 수용태도와 자문화 전달태도 모두 결혼적응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다문화 수용태도는 남편의 경우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아내가 다문화 수용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한국문화를 수용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적응하려는 아내들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문화 전달태도는 남편이 외국인 아내의 모국문화를 얼마나 이해하고 배우고자 노력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아내들은 서로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데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결혼생활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아내들은 언어, 음식,

생활방식에 대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문화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오해로 인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 문화차이가 클수록 결혼적응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결과적으로 문화적 요인은 다문화가족의 부부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와 갈등의 근원이자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적응에는 이질적인 생활문화에 순응하는 정도와 기대 및 현실간의 일치정도, 그리고 부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부부를 대상으로 이들 부부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고, 성별에 따른 결혼생활의 차이를 이해하며, 부부사이의 친밀도를 높여 부부의 긍정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다문화가족 부부가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진행할수록 결혼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부부들의 결혼적응 향상을 위해서는 의사소통 교육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의사소통이란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얼굴표정, 목소리, 몸짓, 숨소리 등으로도 이루어진다. 서로 소통하는 공통적 언어가 다소 부족해도 여러 가지 비언어적 메시지를 통하여 서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언어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측면의 감정이나 의견을 긍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으며, 부부의 상호이해 증진과 갈등상황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가족 부부의 문화적응태도가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부부 관계에서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자세가 결혼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 국가의 문화에 대하여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양식에서부터 고차원적인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부부간의 문화차

이를 성격이나 남녀차이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오해와 갈등을 방지할 수 있으며, 서로의 문화에 대해 알려주고 배우는 과정에서 부부간의 결혼적응도 높아질 것이다.

셋째,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적응에 지역사회 전반에서 느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고 예방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할 경우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족 부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이고 지역사회 내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 부부들의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복지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 및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실천적 활동도 중요하리라 본다. 특히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 아내의 경우 자신의 모국어로 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다국적 언어지원 프로그램의 구축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해서도 이민화의 수용 및 다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가족 부부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결혼적응에 그다지 의미있는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인 남편들이 정서상 결혼생활을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하는 한편, 국제결혼에 대한 사회의 편견 등으로 인하여 주위의 도움을 기피하는 현상에 기인한다. 또한 외국인 아내의 60% 이상이 여성결혼이민자센터에서 제공하는 방문교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일주일에 두 차례 방문하여 두 시간씩 이루어지는 한정적인 서비스만으로는 결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인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선행연구들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결혼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보다는 개인간에 의사소통이나 문화적응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서, 개인간의 상호작용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앞으로 후속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적응 요인과 관련하여 개인적 상호작용 요인이 중요한지 사회적 지지 요인이 더 중요한지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된다.

송지현은 한남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동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등을 연구하고 있다(E-mail: 2000_april@hanmail.net).

이태영은 University of Houston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복지국가 · 사회보장론 등을 연구하고 있다(E-mail: tylee@hnu.kr).

참고문헌

- 강기정, 변미희(2009). 다문화 가족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 관련 변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3), pp.123-136.
- 강혜숙, 김영희(2008). 결혼초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요인.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6(1), pp.135-156.
- 계선자, 강혜경, 정미선(2009). 다문화가족의 결혼생활 관련요인 분석: 용산구 다문화가족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3), pp.31-56.
- 고선주(1997). 취업부부의 부모기 전이후 부모로서의 긴장감, 지배감, 성역할태도와 결혼적응. 대한가정학회지, 35(5), pp.17-32.
- 권복순, 차보현(2006). 농촌지역 코시안가정주부의 의사소통능력, 문화적 정체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8(3), pp.109-134.
- 구차순(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박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부산대학교, 부산.
- 김근식, 장윤정(2009). 국제결혼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3(1), pp.223-248.
- 김민경(2009). 국제결혼 남성의 “부부되기”에 대한 문화기술지.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pp.179-211.
- 김오남(2006a).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가톨릭대학교, 부천.
- _____ (2006b).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8, pp.33-76.
- 김연수(2007). 서울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행복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1, pp.217-252.
- 김현숙(2010).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2), pp.135-159.
- 박재규(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생활 적응 관련 요인 분석: 전북 지역 사례. 농촌경제, 29(3), pp.67-84.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박사학위논문, 간호학과, 연세대학교, 서울.
- 신란희(2005). 국제결혼 여성의 가족, 일 그리고 정체성. 석사학위논문, 인류학과, 서

- 을대학교, 서울.
- 양순미, 정현숙(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결혼생활 적응과 만족에 대한 영향 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3), pp.223-252.
- 유명기(1997).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문화. *노동문제논집*, 12(1), pp.69-98.
- 유영주, 김경신, 김순옥(1999).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 윤형숙(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최협 외(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서울: 한울 아카데미. pp.321-349
- 이미숙(1996). 맞벌이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성역할정체감이 가사분담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심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집*, 16(1), pp.153-173.
- 이숙현(1988). 한국 근로자계층 부부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2, pp.161-181.
- 이은주(2007). 결혼이민여성 부부집단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필리핀 여성 부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9(1), pp.29-60.
- 장은정(2007). 국제결혼한 한국 남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가정학과, 중앙대학교, 서울.
- 장은정, 박정윤(2009). 결혼이민자가정 한국인 남편의 가족관련 가치관 및 문화적응태도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21(2), pp.1-27.
- 장휘숙, 이영주(2007). 애착과 의사소통 능력 및 결혼관계 만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4), pp.17-32.
- 조혜선(2003). 결혼만족도의 결정요인: 경제적 자원, 성 역할관, 관계성 모델의 비교. *한국사회학*, 37(1), pp.91-115.
- 최규련(1984).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Ⅰ). *대한가정학회지*, 22(2), pp.91-102.
- 추현화, 박옥임, 김진희, 박준섭(2008). 결혼이주여성 남편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4), pp.85-101.
- 통계청(2010). 2009년 혼인통계결과. 대전: 통계청.
- 홍달아기, 채옥희(2007).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한국 생활적응 사례연구.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6(1), pp.61-73.
- 한건수(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 39(1), pp.195-243.
- Baltas, Z., Steptoe, A. (2000). Migration, culture conflic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Turkish-British married couples. *Ethnicity & Health*, 5(2), pp.173-180.
- Berry, J. W. (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A. M. Padilla (eds), *Acculturation: theories, models and some new findings*. Boulder, CO: Westvies. pp.9-25.
- Bienvenu, M. J. (1970). Measurement of marital communication. *The Family Coordinator*, 19(1), pp.26-30.
- Bradbury, T. N., Fincham, F. D., Beach, S. R. H. (2000). Research on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4), pp.964-980.
- Brock, R. L., Lawrence, E. (2008).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stress spillover in marriage: does spousal support adequacy buffer the effect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 pp.11-20.
- Burgess, E. W., Locke, H. J. (1960). *The Family: from institution to companionship*. New York: American Book Company.
- Chinitz, J. G., Brown, R. A. (2001). Religious homogamy, marital conflict, and stability in same-faith and interfaith Jewish marriages. *Journal for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0(4), pp.723-733.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pp.300-314.
- Cottrell, A. B. (1990). Cross-national marriag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21(2), pp.151-169.
- Hovey, D. J. (1999). Psychosocial Predictors of Acculturative Stress in Central American Immigrants. *Journal of Immigrant Health*, 1(4), pp.187-194.
- Imamura, A. E. (1990). Strangers in a strange land: coping with marginality in international marriage.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21(2), pp.171-191.
- Kosic, A. (2004). Acculturation strategies, coping process, and acculturative stres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5, pp.269-278.
- Lewis, R. A., Spanier, G. B. (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Wesley R. Burr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research-based theories*. v.1.

- New York: Free Press. pp.268-294.
- Patterson, F. M. (2004).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s from the lives of aging international migrant women. *International Social Work*, 47(1), pp.25-37.
- Redfield, R., Linton, R., Herskovits, M. J. (1936). Memorandum on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 pp.149-152.
- Remennick, L. (2009). Exploring intercultural relationships: a study of Russian immigrants married to native Israeli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40(5), pp.719-738.
- Sandhu, D. S., Asradadi, B. R. (1994).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1), pp.435-448.
- Seto, A., Cavallaro, M. (2007). Cross-national couples in the mainland United States. *The Family Journal*, 15, pp.258-264.
- Spanier, G. B.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1), pp.15-28.

A Study on Marital Adjustment Factors among Multicultural Couples

Song, Ji-Hyun
(Hannam University)

Lee, Tae-Young
(Han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the marital adjustment of couple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any possible differences between the husbands and wives in that regard. It's basically meant to get a grip on gender gap in marriage life to boost the intimacy and relationship of married couples. The subject in this study were couple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regions of Daejeon and Chungcheong province, who included 130 husbands and 153 wives. A structured survey was conducted to gather data.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concerning factors affecting marital adjustment, the husbands were better adjusted when they had fewer children, when they had a more efficient communication with their wives, when they made more efforts to convey Korean Culture to their wives, and when they suffered less stress due to cultural adjustment. In the event of the wives, a shorter length of marriage life, higher communication efficiency, better receptive attitude to multicultural, stronger attitude of conveying native culture to spouses and less cultural adjustment stress led to better marital adjustment. The above-mentioned findings suggested that conjugal communication efficiency and cultural adjustment have the most crucial impact on satisfaction level with marriage life.

Keywords: Multicultural Families, Marital Adjustment, Communication, Cultural Adjustment